

시어로 형상화한 생명에의 의지

《누군가의 연보》 펴낸 류수안씨

류수안씨의 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정점을 향해 몸달아 있다.

그 정점은 '꼭대기' 이미지로, 때론 그와 정반대인 밑바닥의 둔중함으로 형상화된다. 전자가 생명을 향한 동경이라면 후자는 한자리에 남아 있으려는 본능의 표현이다. 류씨는 이번 시집에서 그 모순된 두 본질 사이의 아득한 빈 공간에 특유의 나선형으로 말려 들어가는 상상력을 침투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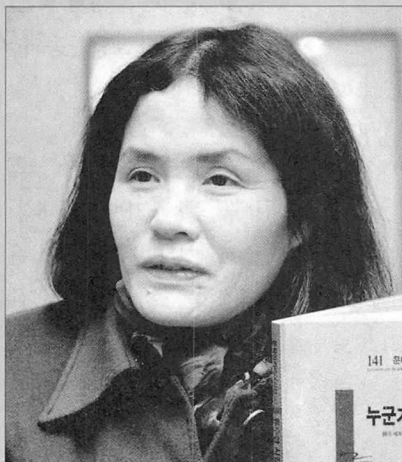
시인들은 어눌하다. 조심조심, 말하거나 더듬더듬, 말한다. 가끔 지나치게 재기발랄한 시인들이 있어 보는 사람을 아연케도 하지만, 대다수 시인들이 보여주는 도저한 어눌함에 비한다면 그저 사소한 일탈일 뿐이다. 시인들의 입에 재갈이 물려진 이유는 뭘까. 자문에 자답을 하자면, 그들이 뒤로 가기 때문이다. 전진해도 모자랄 판에 후진을 거듭하다보니 서로 어울려 떠들썩하게 살아가는 일엔 영 '잼병'인 것이다.

류수안씨(43)는 그런 시인 가운데서도 '선수급'에 속한다. 《누군가의 연보》(문학아카데미)로 자신의 네번째 시집을 상자했지만, 세상은 별 반응이 없다. 누군가는 신예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번 시집에서도 '시면 됐지 설명은 무슨'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서와 해설을 뺐다.

책읽기에서 시적 모티프 구해

"매일 버스를 타고 시립도서관에 갑니다. 가서 소설을 읽고, 화집도 넘겨보고, 수학이나 물리학 서적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 책 저 책 떠돌아다니는 거죠. 때론 전집류를 며칠동안 몰아서 읽어치우기도 합니다. 어떤 이미지나 주제를 찾으면 그것과 연관된 책으로 옮기죠."

시인은 책에 묻혀서 산다. 하지만 독서의 방법이 보통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다. 중간부터 읽기도 하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올 때도 있다.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경우는 드물다. 시인에게 책은 만지고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친숙한 사물이다. 또 그에게 책은 이미지의 박물관이다. 수학공식이 가득한 페이지도 그 나름의 중심이 있어,



류수안씨

그 중심에서 뻗어나오는 어떤 힘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고 시인은 설명한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뭘 써야 할지 마음이 정해진다.

"이번 시집은 내면을, 사람들이 보통 무의식이라 말하는 부분을 탐구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한 1년 정도 집중적으로 썼죠. 언제부터가 내면을 들끓게 하던 어떤 '열기'를 느끼고 있었는데,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그 무정형의 대상을 향해 여러 차례 묻고 답하다보니 시집 한권 분량이 되더군요. 지금은 그 느낌을 '생명'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 뿔달린 짐승 / 흑염소뿔로구나...나의 넓은 끝없는 두개의 태양 사이를 헤맨다"(<황금 수평선 위의 태양>)란 구절은 이 시집의 전체 구조를 보여준다. 화자는 하늘의 태

양(절대자)과 지는 해(죽음과 멈춤) 사이의 빈 공간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빈 공간은 신화적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꿀을 먹는 호랑이"(<기하학>) "피 흘리는 황금 독수리"(<빛이 샘물 속에서 눈뜨다>))를 비롯한 뱀, 거미, 농부, 장미와 술꾼, 황금과 벌레 등 현실감이 삭제된 '상징'들이 기이한 행위를 연출한다. 류씨는 무리한 행갈이를 통해 상징들을 연결시켜나간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들이 주는 느낌이 난해하고 관념적이다. 하지만 이 시들을 관통하는 서술어들이 가끔 등장해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돌 속에서 / 살과 피의 산 심장이 두근거린다"(<어느 부도탑에서 보다>))고 고백하거나 "밀폐된 눈꺼풀 안에 꼭찬 빛"(<외로운 사람>) 같은 표현을 통해 주제를 암시한다.

류씨의 시편엔 묘사가 없다. 내면에 대한 묘사도 드물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좌충우돌하는 생명에 대한 의지를 애써 다독이고 정돈한 듯한 느낌이다. 이것은 마치 고양이 그림을 볼 때 생기는 감정과도 유사하다.

고야의 그림 떠올리게 하는 시편

"고야는 귀머거리가 되고 나서 내면의 불안함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기괴한 악마들이 무도회를 열기도 하고, 사형당하기 직전의 인간 표정을 잡아내기도 합니다. 해골이 다 된 할머니가 신부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그림을 보면 제 자신이 통제로 빨려 들어가는 착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탓인지, 류씨의 시편들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다. 뱀의 죽음을 표현한 "색(色)을 받아들이는 보석, / 뱀의 그림자는 안으로 말려 들어가며 / 단단해진다"(<태양의 무늬>))가 그런 경우다. "물의 그윽한 어떤 장소가 암맥 안으로 스며 사라진다"(<바다, 나의 애인>))에서처럼 나선형으로 말려 들어가는 상상력의 힘이 독자들의 시선을 묶는다. - 강성민 기자



문학아카데미/B6/114면/5000원